

# Moire 방법을 이용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Seam Puckering에 관한 연구

조영경, 김태훈. \*김승진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Seam Puckering은 두꺼운 직물보다는 얇은 직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근 의복의 경량화 및 좋은 handle을 유지하기 위한 소재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얇은 직물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직물의 조직에 대해서는 미비했던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olyester직물을 꼬임수와 의사밀도를 달리하여 제직한 후 감량가공시켜 얇은 직물을 제작하여, 직물의 꼬임수 밀도, 팍수 및 세탁회수가 Puckering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Puckering량을 Moire Topography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세탁회수에 따른 변화에서는 세탁 1회에서 Puckering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세탁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즉 세탁 3회보다는 세탁 5회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꼬임수가 많을수록 Puckering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3. 꼬임수가 일정할 때는 단위길이당 팍수가 적을수록 Puckering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밀도가 일정할 때는 단위길이당 팍수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하였다. 꼬임수와 밀도사이에는 반대현상을 보인다.
4. Moire Topography방법은 직물의 Seam Puckering을 측정하는데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